

권두언

인권법학회와 한국인권학회가 공동으로 펴내는 <인권연구>의 6권 1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통권 1호가 나온 후 이번에 11번째 학술지가 나오게 된 것이므로 열 권을 하나의 묶음으로 본다면 이번 호부터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공식적으로 등재지의 지위를 가진 우리 학술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양 학회의 회원님들께 고마움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인권연구> 창간호에 실린 발간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학회지의 어제, 오늘, 내일을 조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인권법학회와 한국인권학회의 두 회장님이 함께 쓰신 발간사는 우리 학술지의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인권 침해 문제를 학제간 시각으로 탐구하고 원인 분석, 해결책 및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둘째, 인권 연구와 인권 운동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 셋째, 전세계 차원의 인권 담론을 소개하고 국내 인권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소개한다. 넷째, 인권 관련한 소수 목소리를 소개하고 인권 논의의 장을 풍성하게 만든다.

창간호의 발간사에서 제시된 <인권연구>의 지향점은 현재도 우리에게 뚜렷한 목적의식을 일깨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 현장논단, 학술자료 등을 일별해 보면 큰 틀에서 이 지향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인권연구>가 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학술지의 전통적 연속성을 살펴보기 위해 창간호에 실린 글과 이번 호에 실리는 글을 예시해 보겠습니다.

창간호에서는 ‘일반논문’으로 “평화권 논의의 구조와 전망”, “인권 실현의 통합적 접근”, “외국인의 사회권과 헌법재판소 판례 비판”, “국제입양과 국적에 대한 국제규범과 미국의 한국출신 입양인 추방”,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비병리화 담론의 전개와 인권적 의의”가 실렸습니다. ‘현장논단’으로 “장애여성 문화예술 활동의 정치성”, “이

주민 인권의 보호와 헌법 개정의 방향”이 실렸습니다. ‘좌담회’에서는 “한국 인권운동의 도전과 전망”이 실렸고, 학술자료로 인권 관련 저서 목록이 실렸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일반논문’으로 “노동인권 교육에서 그림책 읽기 방안 연구”, “공공 급식에서 윤리적 채식 선택권과 인권의 도전”, “학생 인권과 교권 관계에 관한 학생의 인식”, “환경권의 의미 확장을 위한 시론적 고찰”, “‘자연의 권리’로 재구성하는 탈인간중심적 평화 패러다임”, “인권 관점의 ‘의복권’ 고찰”이 실립니다. 그리고 ‘현장논단’에는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 판결의 의미와 한계”, “The Daegu Mosque Issue: A Reflection of Islamophobia and Challenges to Religious Freedom in South Korea”가 게재됩니다.

창간호의 내용과 이번 호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인권연구>의 지향점을 충실하게 따르면서도,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의 깊이가 더해지고 인권 개념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반갑고 고무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술지의 이런 지성적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회원님들께서 좋은 연구를 발표해 주시고, 좋은 필자를 추천해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고, <인권연구>에 실린 논문들을 자주 인용해 주시면 우리 학술지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 인권 향상을 위한 우리 연구자들의 임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몇 분의 도움을 특별히 기록해 두고 싶습니다. 학술지의 틀을 잡는 과정에서 김지혜 한국인권학회 부회장님이 크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지난 호까지 <인권연구>를 이끌어 주신 송기춘 편집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호부터 <인권연구>를 새롭게 맡으신 이주영 편집위원장과 새 편집위원님들께도 기대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호까지 편집 실무를 맡았던 김민성 간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번 호부터는 김혜정 간사님이 수고해 주십니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과 공동으로 연재하는 <인권학의 프런티어> 시리즈에서는 <인권연구>에 발표된 글을

가려 뽑아 대중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성 간사님이 집필했고, 앞으로는 황준서 회원님이 바톤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를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법학회의 김종철 회장님과 회원님들, 그리고 한국인권학회의 회원님들께 거듭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한국인권학회장 **조효제**

www.kci.go.kr